

서울방송 노동조합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

부끄러운 날들을 우리의 달력에서 지웁시다.
더 이상 우리는 굴종과 처욕의 시간속에서 하루하루를 음추리며 보내지 않겠습니다. 눈 멀고 귀 먹고 입 막고 산 8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으렵니다. '기쁨 주고 사랑받는 SBS'의 가족으로 거듭 태어나 그동안 실망시켰던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잃었던 자존을 다시 찾으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노조'라는 배를 띄웁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더 이상 잃어서도 안된다는 절대절명의 각오로 우리의 결의를 행동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너무 늦은 감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깨에 기대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기에는 우리의 양심이 허락치 않습니다.

서울방송이 생긴지 어언 8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론사의 한 일원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을 사실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불면의 밤을 보낸 적도 많았습니다. 때론 용기가 없어서, 때론 타의에 의해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나약해야만 했습니까? 진정 우리는 겁쟁이었습니까? 과거에만 그랬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회사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한 어렵습니다. 이 시점에서 노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위임한 신뢰와 우리 자신의 생존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SBS 식구들이 잘 알 것입니다. 칼자루는 쥐고 있지 않지만 불의의 칼날을 막는 방패를 이제 마련하려 합니다.

막다른 벼랑 끝에서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습니다."

1998년 10월 26일
서울방송 노동조합

"오늘은 노조 창립 23주년... 23년 전 오늘을 기억합니다."

23년 전 오늘, SBS 구성원들은 언론인, 방송인으로서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고, 더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힘들고 지친 시간을 거친 결과물이었습니다. 개인의 영달과 복지만을 목적으로 한 노조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했고, 그 앞엔 조합원이 함께한 노조가 있었습니다. 23년 전 오늘과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여러분 23년 전 오늘을 기억합니다.

[본부장편지]

23년 전 그때처럼 노조 깃발아래 모입니다

10월 26일 오늘은 23년 전 SBS에 노동조합 깃발이 처음으로 나부낀 날입니다. 소중한 동료가 대주주와 경영진이 휘두른 칼에 힘없이 잘려 나가는 걸 막기 위해 마음속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렇게 하나둘 노조 깃발아래 모였습니다.

반노동적 기업 태영건설의 자회사에서 창사 8년 만에 노동조합의 싹이 튼 겁니다. 더는 양심을 속일 수 없다는 절박함에, 소중한 내 동료를 지키고 싶다는 간절함에, 다음에 쓸려나가는 건 나일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리는 뭉쳤습니다.

사측은 갖은 협박과 회유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막으려 했지만 불과 닷새 만에 과반이 조합에 가입하는 단결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냈습니다. 그렇게 용기로 싹 틔우고 의지로 키워온 노조라는 나무가 SBS에 굵게 뿌리내렸습니다.

대주주가 사익을 위해 공정방송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할 때, 권력과 자본이 SBS를 손에 쥐고 흔들려 할 때마다 노조가 앞장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일터를 지켜냈습니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자초한 신뢰 상실로 SBS가 에스비에스가 아닌 멸칭으로 불릴 때, 동료 언론인들로부터 너희는 언론이 아니라는 치욕적인 수모를 당할 때도 우리는 노조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우리 일터를 바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와 경영진은 23년 전 낡은 사고에서 단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방송독립은 내팽개쳐지고, 노동자의 권리는 무참히 짓밟힙니다. 지금의 무단협 상황 역시, 대주주의 일그러진 탐욕과 경영진의 무책임이 불러왔습니다.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묻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 사회적으로 본이 돼야 할 언론사에서 노동탄압이 자행된다는 비난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SBS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까? 누가 SBS 구성원의 자긍심에 상처를 내고 있습니까? '건강한 콘텐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사훈을 누가 어기고 있습니까?

[SBS 무단협 상황 팩트체크]

- 단체협약은 임금, 휴가 등의 근로조건과 공정방송, 자주적 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사관계의 헌법과도 같은 합의입니다.
- 노조의 양보에도 사측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했습니다.
- 무단협으로 우리의 근로조건은 이미 후퇴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와 경영진이 생각하는 '더 나은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사측은 언론 노동자의 근로조건인 공정방송 파괴를 위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노동자의 권리, 구성원과의 약속은 언제든 휴지장처럼 구겨질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한 번 그랬는데 두 번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측은 퇴행을 멈추기는커녕 노조를 무력화하고 구성원을 길들이는 폭력적 행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혼란을 틈타 구성원 최소한의 동의 없이 차기 사장과 공정방송 최고 책임자를 임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단협으로 이미 우리의 가치와 권리는 훼손됐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드러내야 합니다. 행동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인내하다가는 더 많은 걸 잃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늦을지 모릅니다. 행동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행동의 힘은 함께할 때 더 커집니다. 제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노조를 만든 것도 또 노조를 지켜온 것도 여러분입니다. 두렵다고, 당장 내 일 아니라고 피하고 관심 두지 않는다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무단협 상황에서도 저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싸움도 할 수 없습니다. 싸울 줄 모르는 우리에게 남는 건 굴종뿐입니다. 23년 전 그때처럼 사측의 칼이 언제 내 동료를, 나를 향할지 그저 두려움에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23번째 노조 창립일을 무단협 속에서 맞게 해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노조 초유의 위기와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의 창립식은 하지 않기로 했습

니다. 노동조합이 준비한 조출한 점심 생일상으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전국언론노조와 언론자유를 위해 함께하는 현직 언론인들이 우리 일터에 모여, SBS 무단협 사태를 무겁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SBS 구성원 여러분, 우리의 존엄과 가치, 미래를 위한 싸움에 함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결해야 앞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게 23년 전 우리 일터에서 노조 깃발이 내걸린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

2020.10.26

전국언론노동조합SBS본부 정형택 본부장 드림



“언론노동자의 자존을 지키는 싸움, 만 6천 언론노조 조합원이 함께 합니다”

언제나 자랑스러운 SBS 본부 조합원 여러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윤창현입니다.

창사이래 지속된 무노조 경영의 철옹성을 깨부수고 노동조합의 깃발을 SBS에 내건지 벌써 23년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주신 조합원들, 그리고 수많은 불이익과 희생을 무릅쓰고 버텨온 선후배 동료들이 함께 일궈온 길이었습니다.

비록 태영자본과 사측이 단체협약까지 해지하면서 SBS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존엄을 짓밟아 보겠다는 철없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만큼은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아낌없는 축하와 격려로 노동조합의 생일을 마음껏 자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사내에서는 제대로 인식하기 힘들 수 있겠지만 SBS 본부의 투쟁사는 대한민국 언론운동사의 중요한 기록이자,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진보의 역사입니다.

상업방송, 사영방송이라는 조롱까지 받으며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방송을 마구 동원하던 악습의 고리는 중단없는 노동조합의 투쟁이 없었으면 이미 SBS를 거꾸러뜨렸을 것입니다. 또 2004년 대주주의 잘못으로 인한 재허가 파동으로 SBS가 간판을 내려야 할 위기의 순간에 노동조합의 노력과 결단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쯤 다른 자본이 지배주주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마구 유출되던 방송수익구조를 바로 잡는 노동조합의 투쟁이 없었으면 극심한 위기에 가장 취약한 방송사가 됐을 것입니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 경영진과 사적 이익에 매몰돼 방송의 사회적 신뢰와 공적 책임의 무게를 망각했던 대주주를 대신해 늘 조직의 위기에 몸을 던져 미래를 담보해 온 것은 바로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노동조합이었습니다.

이미 SBS 본부가 걸어온 발자취와 투쟁의 성취들은 대한민국 방송 역사를 바꾸는 틀로 진화했습니다. 공영방송을 포함한 여타 언론사업장의 직장민주주의 강화와 대등한 노사관계, 그리고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시청자 신뢰를 강화하는 표준이 된 상황입니다.

이는 지난 2017년 임명동의제 시행 합의 당시 태영자본과 사측이 공히 인정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저들은 스스로 내뱉었던 자화자찬까지 뒤엎어가면서 DNA에 침잠해 있던 방송장악의 발톱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시도는 결국 또다시 실패로



귀결될 것입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착오이자, 진보의 역사에 저항하는 당량거칠일 뿐입니다. 이미 태영자본과 사측의 속내가 임명동의제를 넘어 노조파괴에 있다는 점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깊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150여 사업장의 만6천 언론 노동자들 또한 SBS 본부가 세운 방송민주화 역사의 중대한 전진을 지지 엄호하기 위해 함께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경영진은 10년 전, 같은 방식으로 MBC를 망쳤던 그 때 그 자들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며, 노동조합을 파괴해서라도 방송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자본은 태영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퇴출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어느 때보다 ‘내가 스스로 노동조합을 지키겠다’는 작지만 단단한 각오들을 하나로 모아주셔야 할 시간입니다. 태영자본과 경영진이 부수려 하는 노동조합의 울타리 안에는 언제라도 쓰고 버릴 부속품 같은 노동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키고자 하는 눈물과 땀, 그리고 자존이 있습니다.

SBS 선후배들의 격려와 응원, 그 자양분을 먹고 버텨온 저 역시 제 위치에서 할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언론노조 차원의 강고한 연대투쟁을 통해 태영자본의 노조파괴 책동 분쇄는 물론 다시는 이러한 천박한 시도가 어떤 언론 방송 사업장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 제도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노조 창립 23주년, 투쟁하는 SBS 본부 조합원들께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투쟁!!!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스스로를 믿고 동료들과 함께 합시다”



심석태 전 본부장(10,11대)

회사를 떠나고 보니 종종 언론에서 SBS라는 이름을 발견하면 무척 반갑습니다. 회사 관련 기사는 꼭 읽어봅니다. 모니터도 회사 다닐 때 못지않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지금 노동조합 창립 기념일을 편한 마음으로 맞지 못하는 사정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현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엉뚱한 얘기에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도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초심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기념일은 조합이 처음 만들어지던 때를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물론 많은 상황이 변했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울 것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창립 기념일을 맞아 하나는 다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동료들과 함께 해야만 어떤 문제든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번 창립 기념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뜻깊은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단협 파기는 타협의 대상 아냐.. 응징해야 할 악(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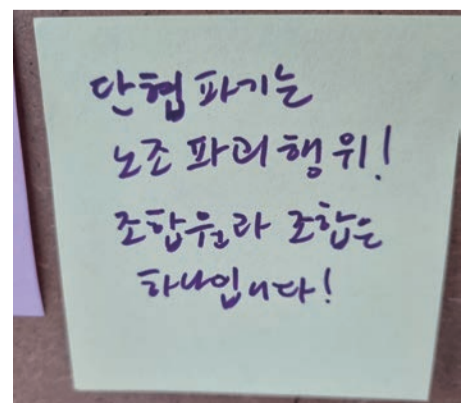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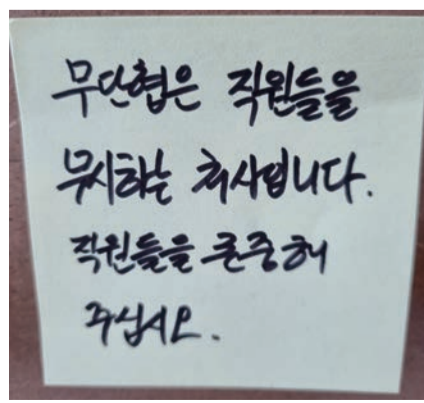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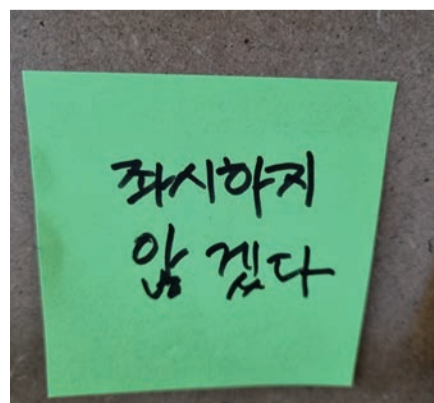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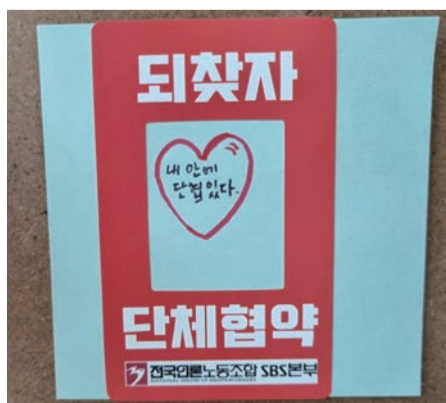
이윤민 전 본부장(12대)

1990년 창사 이후 SBS는 수년간 무노조 상태였습니다. 안으로는 참담했고, 밖으로는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은 우리에게 큰 성취와 자긍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생의 노사관계 시작을 알린 것이 단체협약 체결이었습니다.

2021년 SBS는 무단협 상태입니다.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악화일로에 있는 노사관계는 우리에게 큰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투쟁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단합하고 연대하면 그 결과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한 때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함께 했던 노동조합원 출신 경영진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말(言)을 넘어 실행됐을 때, ‘단협 파기’는 더 이상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응징해야 할 악(惡)입니다.



“저항이 의무인 때에 살고 있습니다”

불의가 법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노동조합은 저항이 의무인 때를 살고 있습니다.
 스물 세 해 전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노동조합을 시작한 이래
 초유의 비상식을 끈추어야 할 때를 만났습니다.
 어느 한 순간 밀리고 멈추었던 날이 있었지만 우리 노동조합은
 ‘우리의 요구를 법으로’ 만들었던 승리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연대와 자신감으로 하나씩, 조금씩 작은 승리를 쌓아 더 크게 이깁시다.



채수현 전 본부장(14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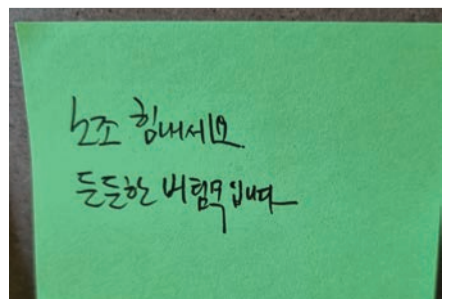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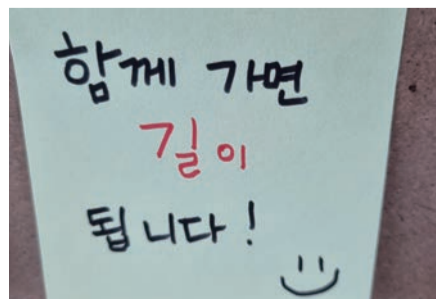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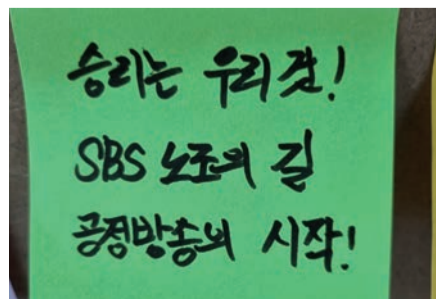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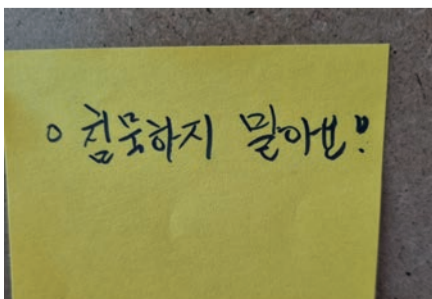
“누군가의 희생을 돌아보며 행동하는 SBS 조합원이 됩시다”

SBS 노동조합은 언제 생겼을까요?
 노동조합은 노동자에게 공기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낼 때가 많죠.
 97년 외환위기가 닥치자, 창사이래 단 한차례 적자도 내지 않던
 회사가 사람부터 자르겠다는 말부터 합니다. SBS를 3개로 찢고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하죠. 직원들은 회사의 갑작스런 조치에 속
 수무책이었습니다.
 무엇이랴도 해야하는데 할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30여명의 직원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SBS 노동조
 합은 탄생했습니다.
 갓난 아기와 같은 노조는 거세계 회사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최소
 한의 고용조건을 보장받고 구조조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조합 집행부는 이 과정에서 대거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흘린 피로 SBS 노동조합은 탄생했습니다.
 살면서 소중한 것에 대해 잊고 삽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빼앗기면 그제서야 불편함을 느낍니다. 아니 살 수가 없습
 니다.
 노동조합이 그런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동조합 없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까요?

무단협도 괜찮지 않냐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임명동의제이지만 다음은 무엇이 될까요?
 노동조합이 없어도 회사가 직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선의로 순순
 히 들어줄까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 했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잊었던 누군가의 희생을 돌아보며,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위
 해 행동하는 SBS노동조합원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수고와 희생으로 섬겨주신 선배 노동자와 조합집행부에 진심으
 로 감사를 전하며 창립 23주년을 축하합니다.



조춘동 전 수석부분부장(14,15대)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규약

제4조(목적)

본부는 조합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언론 노동자로서의 지위와 제 권리를 보장하며 방송독립과 공정방송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본부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정방송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노동 3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
3. 실질 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노동자 권리 보호와 고용 안정,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5. 산업 안전 및 건전한 노동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
6. 조직의 확대 강화와 산업별, 지역별 및 전 노동자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7. 기타 제4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 및 본부의 운영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조합 및 본부의 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지킬 의무
3.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단, 임금피크제로 인해 안식년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4. 조합 및 본부의 명예를 유지하고 규율을 준수할 의무
5. 조합 및 본부의 제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가할 의무